

# 완결을 꿈꾸는 텍스트의 실험들

김도연\_(주)샘터사 출판사업부 과장

모든 텍스트는 완결을 꿈꾼다. 이 말은 모든 텍스트는 생래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텍스트가 완전한 의미로의 진화를 이행하면서 끊임없이 경계를 뛰어넘는 접속을 욕망하는 것은 텍스트가 완결을 꿈꾸기 때문이다. 상호텍스트성, 하이퍼텍스트 같은 '의미장' 들은 그런 텍스트의 속성을 명징하게 증명하는 것들이다.

사실, 문자텍스트와 이미지텍스트(이 글에서는 주로 사진을 지칭한다)의 결합은 오래 전부터 시도돼 왔다. 현대가 비주얼시대라고 해서 텍스트로서의 사진이 갑자기 주목받는다 고 말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카메라 옵스큐라로부터 시작된 사진-이미지의 출현은 출판이 갖는 매체적 특성과 소용에 따라서 알맞게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사진으로 표상되는 이미지에 대한 열망, 다시 말하면 시각적 쾌감에 대한 열망 역시 기술적인 스킬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가장 순발력 있는 매체랄 수 있는 출판에서 문자텍스트와 이미지텍스트의 상호 교접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출판 상품으로서의 책은 방송의 영상물과는 달리 지속적인 분석과 감상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편집자들은 보다 정치하고 섬세한 분석과 감상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편집자는 불완전한 텍스트의 완결을 통해서 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때 문자텍스트와 이미지텍스트의 조합은 가장 일차적인 대안으로서 간주되고 실험될 수 있는 것이다.

문자텍스트와 이미지텍스트의 교접은 예전에는 단지 부속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를테면 문자는 사진과 그림의 캡션에 지나지 않거나, 반대로 사진이나 그림이 문자의 이해를 돕는 삽화나 자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보

다 적극적으로 텍스트들 간의 교접과 섞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혼종문화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이들도 있거니와 전 시대의 의식과 절연하고 늘 전위적인 문화트렌드를 선취해야 하는 출판으로서는 아마도 이런 실험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필자가 기획하고 샘터에서 발간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역시 문자텍스트와 이미지텍스트의 완전한 조화를 추구한 책이다. 기획을 하는 동안 필자가 염두에 둔 것은 발터 벤야민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말했던 '시각적 무의식'이다. 그것은 사진작가가 객관적 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카메라에 무의식을 투사시켜 피사체를 프레임 안에서 창조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최민식 선생의 사진이 감추고 있는 '시각적 무의식'을 조은 시인의 감성을 통해 파릇파릇한 문자로 재생시키고 싶었다. 그 작업이 유효했는지, 이 책은 두 달여 만에 5쇄를 찍는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김정미 시인이 여러 사진 작가가 찍은 바다 사진에 글을 붙인 《바다 내게로 오다》, 소설가 신경숙과 사진작가 구분창이 작업한 《자거라 내 슬픔아》도 사진의 시각적 무의식을 문자로 포착해서 더욱 완결된 형태의 텍스트로 완성시킨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외서 쪽을 보자면 연전에 빅 히트를 기록한 《블루데이 북》이나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 시리즈》가 문자텍스트와 사진텍스트가 행복하게 만나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기억해 둘 만하다. [E]